

의대 43.6% '미적분·기하' 지정... 일반 이공계는 한곳뿐

종로학원, 대학별 전형계획 분석 수학 선택과목 반영 기준 차이 일각선 이공계 역량 약화 우려

이공계 인재 육성을 강조해온 정부 기조와 달리, 2027학년도 정시에서 전국 174개 4년제 대학 가운데 자연계 학과 전반에서 수학 미적분·기하를 지정한 대학은 서울대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 39개 의대 중에서는 17개 대학이 미적분·기하를 지정해, 일반 이공계 학과와 의대의 수학 반영 기준이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2일 종로학원이 2027학년도 대학별 전형계획을 기준으로 전국 174개 대학을 분석한 결과, 자연계 학과 다수에서 정시 지원 시 미적분·기하를 지정한 대학은 서울대가 유일했다. 일부 학과에만 지정된 대학은 7개교였고, 166개교는 수학 선택과목 지정이 없었다.

수학 선택과목 지정은 지원자가 미적분·기하 등 이과 수학을 응시하도록 하

〈자연계 학과 수학 미적분 기하 지정대학 현황〉

/종로학원

대학	지정학과
서울대	전 학과 (식품영양·의류·간호 3개 학과 제외)
가천대(글로벌)	클라우드 공학과
경북대	모바일공학전공
전북대	수학교육과
제주대	수학교육과
충남대	수학과, 수학교육과, 정보통계학과
충북대	수학과, 수학교육과, 정보통계학과
전남대	수학과, 수학교육과, 기계공학과 등 21개 학과

는 기준으로, 이공계 학과의 기초 수학 역량을 반영하는 장치다.

권역별로 보면 서울권 32개 대학 중에서는 서울대만 자연계 학과 전반에서 미적분·기하를 지정했다. 경인권 40개 대학에서는 전반 지정 대학이 없었고 일부 학과 지정 대학은 1개교였다. 지방 102개 대학 가운데에서도 자연계 학과 전반에서 미적분·기하를 지정한 대학은 없었고, 일부 학과 지정 대학은 6개교에

그쳤다.

자연계 학과에서 수학 선택과목을 지정한 대학 현황을 보면 서울대는 식품영양학과·의류학과·간호학과를 제외한 대부분 자연계 학과에서 미적분·기하를 지정했다. 이어 전남대가 자연계 46개 학과 중 수학과·수학교육과·기계공학과 등 21개 학과에서 미적분·기하를 지정했다. 충남대와 충북대는 각각 수학과·수학교육과·정보통계학과 등 3개 학과에

서 이를 반영했다. 가천대는 클라우드공학과 1개 학과, 경북대는 모바일공학전공 1개 학과, 전북대와 제주대는 각각 수학교육과 1개 학과에서만 미적분·기하를 지정했다.

서울권 대학 상황도 비슷했다. 종로학원은 서울권 조사대학 32개 대학 중 서울대를 제외한 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서강대·한양대·중앙대·경희대·이화여대·서울시립대 등 31개 대학 자연계 학과에서는 수학 지정과목이 없어 문과 수학과로 분류되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도 정시 지원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수학과와 수학교육과가 개설된 서울권 20개 대학 중에서도 서울대를 제외한 19개 대학은 확률과 통계로 정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는 상황이 달랐다. 전국 39개 의대 중 17개교(43.6%)가 미적분·기하를 지정했다. 서울대, 울산대, 단국대, 전북대, 가천대 등이 이에 해당했다. 반면 연세대, 고려대, 가톨릭대 등 22개교는 수학 선택과목 지정이 없었다.

종로학원은 자연계 학과에서 수학 선택과목 지정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확률과 통계 응시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수능 확률과 통계 응시 비율은 ▲2022학년도 51.7% ▲2023학년도 48.2% ▲2024학년도 45.1% ▲2025학년도 45.6% ▲2026학년도 56.1%로 지난해부터 급격히 상승했다.

종로학원은 2028학년도 대입부터 수능 수학에서 문·이과 구분이 33년 만에 폐지되고, 시험 범위도 사실상 문과 범위로 축소된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2028학년도부터는 수능 수학에서 이과 범위 자체가 없어지는 만큼 이공계 진학 학생들의 수학 실력이 예전과 매우 다른 상황일 수 있다"며 "이공계 집중 육성 정책과 부합하는지, 각 대학들이 이러한 현상에 대해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시, 3개월간 기후동행카드 환급 추진

30일권 이용자 대상 월 3만원 예정 오세훈 시장 "고유가 극복 대책 추진"

서울시는 중동 전염으로 인한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월 3만원을 환급한다고 5일 밝혔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대중교통과 파킹·한강버스 등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전국 최초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이다.

이번 환급 적용 대상은 이달부터 6월까지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충전해 이용한 서울시민이다. 개별 이용자 충전·만료 내역을 확인 후 6월부터 3만원을 환급할 예정이다.

다만 충전 이후 사용하지 않은 환

〈기후동행카드 환급 계획〉

/서울시

구분	일반	청년	청소년	두자녀	세자녀	저소득
충전금액	62,000	55,000	55,000	55,000	45,000	45,000
페이백금액	월 3만원	월 3만원	월 3만원	월 3만원	월 3만원	월 3만원
적용금액	32,000	25,000	25,000	25,000	15,000	15,000

불 이용자, 충전금 미사용자, 단기권, 개인 확인이 불가한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 미가입자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 혜택을 받기 위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는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카드를 등록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낮았던 승용차 이용자, 프리랜서, 학생 등이 기후동행카드를 선택할 것으로 시는 기

대했다. 시는 약 100만명이 환급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위기의 시기에 서울시가 갖추고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대중교통 인프라를 기반으로 고강도 대중교통비 절감 대책을 통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률을 제고해 에너지 절감에 동참하고 고유가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평택시, 탄약고 이전부지 문화공간 조성

고덕지구 3-3단계 사업 속도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개발의 핵심 현안이었던 '알파탄약고' 이전이 지난 3월 19일 최종 완료되면서 고덕지구 3-3단계 사업을 비롯한 국제도시 조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3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알파탄약고 이전 경과와 향후 부지 활용 및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고덕지구는 2008년부터 단계별 개발이 진행돼 현재 약 6만7천 명이 거주 중이나, 지구 중심부에 위치한 알파탄약고로 인해 3-3단계 사업 추진에 제약이 받았다. 이에 평택시는 2021년부터 주한미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특별합동실무단을 구성해 협의를 이어왔다.

이전 완료에 따라 그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제한됐던 도로 등 기반시



정장선 평택시장이 지난 3일 시청에서 알파탄약고 이전 경과와 향후 부지 활용 및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평택시

설 착공이 즉시 가능해졌다. 시는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군사보호구역 해제 및 공여구역 반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탄약고 이전 부지는 지역의 역사성을 반영한 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시민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활용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평택(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고려대 '공약다나와' 웹서비스

지방선거 후보들의 공약을 인공지능으로 한눈에 비교·분석할 수 있는 웹서비스가 나왔다.

고려대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강우창 교수팀이 시빅해커 이동근, 한국정당학회, 뉴웨이즈와 함께 개발했다.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부터 2022년 제8회 지방선거까지 최근 5회에 걸친 지방선거 공약을 자동 분류한 웹 기반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현진 기자

도심 대형 전광판 운영시간 자율 단축

서울시 범국가적 에너지 절약 동참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자원 안보 위기로 범국가적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과 협력해 6일부터 5일간 하루 2시간씩 도심 대형 전광판 운영시간 자율 단축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따라서 기존에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돼 온 광화문·명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내 대형 전광판 총 30기는

6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시작 및 종료시각을 1시간씩 단축한다.

시는 에너지 절약이 절실한 시기, 위기 극복 필요성에 공감한 민간 운영주체가 자율적으로 운영시간을 조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시민 체감도 높고 상징성 있는 도심을 시작으로 시민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 분위기를 시내 전역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11 | 해질 / 18:59

4월

6일 (月)

음력 : 2월 19일

수도권 날씨

8 ~ 14 °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연천 7/15

동두천 7/15

가평 6/15

파주 7/15

서울 8/14

양평 8/15

용인 8/14

평택 8/15

인천 8/12

수원 8/14

백령도 6/8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트럼프 "이란서 격추된 F-15E 탑승 무기시스템 장교 구출"
 ▲ 러시아 "지난 7시간 동안 우크라이나 무인기 69대 격추" 발표



▲ 레바논 유엔평화유지군, 이군의 감시카메라 파괴에 공식 항의
 ▲ "입사 첫날 퇴사"...퇴직 대행업체 찾는 日 신입사원들

/사진 뉴스

▲ "지구보다 달이 더 가깝다"...'아르테미스 2호' 비행 절반 돌파
 ▲ "당신 미쳤나" 심판 향해 성차별·폭언 네이마르, 북중미월드컵 불투명